



25-2 ISEP 교환학생

TRUMAN STATE UNIVERSITY

행정학과 황*균



목차

- 파견 준비
- TRUMAN STATE UNIVERSITY
- CAMPUS-LIFE
- 마무리

파견 준비 - 비자

- 파견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발급입니다. 비자는 ISEP 지원을 통한 J-1으로 발급되기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비교적 받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그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자 절차는 빠르게 시작할 수록 좋습니다.
- 저는 비자를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혹여 대사관 최종 발급전 반려 되는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비자 절차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ISEP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줍니다. 필요한 사항이나 겪고 있는 문제 등을 ISEP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준비 - 항공권

- 항공권 구매는 개인의 선택이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비행은 그 자체로 짧지 않은 시간이고 도착 후에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피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출국 당시에는 약 20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 귀국여행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출발 시애틀 도착 비행기가 여행사의 일방적인 비행기편 시간 변경으로 인해 10시간 가량 앞당겨져 기존의 일정보다 10시간 일찍 출발하여야 했으며(당일 새벽에 출발하였음) 환승 공항에서 13시간 가량 대기 후 시애틀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36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미국 항공사에서 비행시 시간에 대한 일방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예비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준비 - 준비물

- 미국은 어느 도시에나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취급합니다. 비록 환율 차이에 의한 가격 체감은 있으나, 물건의 가격 역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물건은 한국에서 챙기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꼭 챙겨야 할 물건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구매를 추천합니다. 저는 몇벌의 옷과 필수 의약품 정도만을 챙겼습니다.

Truman state university - Townlife

- 해당교가 위치한 미주리주 컵스빌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좋게 말하면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이며, 나쁘게 말하면 다소 심심한 동네입니다. 때문에 타운내에서 관광과 같은 활동은 다소 어렵습니다.



Truman state university - Campus

- Truman state university는 주립대학 특성상 국제학생이 많습니다. 때문에 교내에서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다양한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불쾌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 작은 소도시의 학교이지만 그 규모는 상당하며 교내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 또한 교내의 각종 커뮤니티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Truman state university - Campus



캠퍼스의 기숙사는 학교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특별히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더럽거나 벌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관리된 오래된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 층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과 건조는 모두 무료이며 이용에 불편함 없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Truman state university - Campus

- 식사는 ISEP을 통해 지원받은 밀플랜을 이용하였으며 주 18회 + 달란트를 지급받았습니다. 각 식사는 뷔페식으로 원하는 만큼 받아 갈 수 있으며, 영양적으로도 불균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 1~2회 정도 특별식이 준비되어 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미지의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을 홀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생각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설렘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다시 이 순간을 돌아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학생 파견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분명 다시 한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거나, 교환학생으로 시간을 허비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교환학생에 참여할 것을 추천드리며 마치겠습니다.